5·18추모행사 '오, 메이 빽그라운드' 팡파르

24일부터 소극장 씨어터연바람
섬사람들 광주 여정 '노르망디'
마임이스트 유진규 '오월 부활제'
김근태 개인전 '오월, 별이 된…' 등

극단 후암의 연극 '노르망디' 한 장면. 예술이빽그라운드 제공

복합예술공간 '예술이빽그라운드'가 소극장 '씨어터연바람'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추념행사 '오, 메이 빽그라운드 공연예술제'를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연다. 동구 구성로에 있는 씨어터연바람에서 광주의 오월을 기억할 수 있는 연극을 비롯해 공연예술이 펼쳐진다.

이번 행사 '오, 메이 빽그라운 공연예술제'에서 '오'는 감탄사인 동시에 5를 상징한다. '메이' 역시 5월을 의미하고 '오, 메이'는 전라도 사투리인 의성어다.

우리의 오월이 모두의 오월이 되길 바라는 의미로 서울극단 '후암', 1세대 마임이스트 유진규, 삶과 죽음의 춤인 지신무 창시자 서승아 등 다양한 예술인이 함께 한다.

먼저 극단 후암이 연극 '노르망디'를 오는 24일 오후 7시 30분, 25일 오후 4시에 소극장 씨어터연바람에서 선보이다. 연극 노르망디는 목포 작은 섬에 사는 고등학생 여섯 명이 광주로 떠나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태어나서 섬을 떠나본 적 없는 학생들은 1980년 6월 6일 현충일 주말을 틈타 어른들 몰래 육지로 나가고자 부둣가에 모인다. 광주에 사는 언니의 소식이 없어 직접 가본다는 여학생, 광주 극단 오디션을 보겠다는 여학생, 짝사랑하는 오빠를 만나러 간다는 전교 1등과 친구들이 간다니까 따라나서는 카메라 남학생 등. 기대로 부푸는 것도 잠시, 한 학생이 광주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광주에 나가면 다 죽으니까 나가지 말자고 말한다. 학생들은 강행파와 안전파로 나뉘는데…. 1980년 5월 광주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풀어내는 연극 노르망디는 80년대 유쾌한 분위를 끌어내면서도 광주민중항쟁을 추모하게 한다.

광주극단 푸른연극마을은 연극 '한 남자'를 26일 오후 4시, 27일 오후 7시 30분에 소극장 씨어터연바람에서 선보인다. 연극 한 남자는 낡은 구둣방의 한 남자와 생명보험회사 조사원 사이 미스테리한 사연을 다룬다.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 한 낡은 구둣방에 어느날 생명보험회사 조사원이 찾아온다. 조사원은 구둣방을 지키는 한 남자가 얼마 전 만료되어 계약 연장을 했던 생명보험금액을 최고치로 상향 조정한 것에 의구심을 품고 정보를 요구한다. 구둣방 남자는 무언가를 숨기는 듯 경계심을 보이며 거부한다. 짧은 말다툼이 오간 후 둘 사이엔 불편한 기운이 흐르는데, 그 순간 구둣방 남자의 시야에 순간적으로 붉은 드레스의 여인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그는 점점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하는데….

마임과 지신무를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는 '오월 부활제'도 기대를 모은다. 무대는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소극장 씨어터연바람에서 올려진다. 마임 인생 50년을 지켜온 한국 1세대 마임 배우 유진규는 늘 동시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자신만의 몸짓을 통해 시대의 아픔을 기록한다.

이번 무대에서 5·18민중항쟁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한다. 서승아가 선보일 지신무는 마음을 비우고, 무아의 상태에서 생명의 터전인 흙을 밟으며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회귀의 본선을 순수한 몸짓으로 표현한 춤이다. 서승아는 5·18민중항쟁의 기운을 실어 무아의 자연이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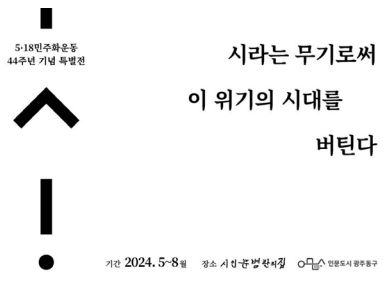
1980년 5월 당시 시민군이었던 김근태 작가는 이번 행사에서 개인전 '오월, 별이 된 들꽃'을 연다. 전시는 오는 6월 8일까지 소극장 씨어터연바람 옆에 위치한 예술이빽그라운드에서 이어진다. 김근태 작가는 오월 시민군이었지만 1980년 5월 26일밤 총을 버려두고 도망간 사연을 고백한 바 있다. 이번 전시에서 들꽃처럼 별들처럼, 인류 평화의 빛으로 드러난 세상 모든 존재를 선보인다.

연극 관람 문의는 (062-226-2446).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5·18 44주년 기념 특별전 '詩라는 무기로써…'

8월까지 시인 문병란의 집
시민 참여 '판화 체험전'도



시인 문병란의 집 '시라는 무기로써 이 위기의 시대를 버틴다'.

광주 동구는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지산동에 위치한 '시인 문병란의 집'에서 5·18 특별전을 오는 8월까지 운영한다.

'시라는 무기로써 이 위기의 시대를 버틴다'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문병란 시인이 쓴 5·18 관련 시(詩)를 만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시민들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판화 체험전'이 준비돼 있다. 무등산과 산 위 별빛을 그린 판화를 관람객들이 직접 제작하고, 작품 상단에는 5월 광주를 기념하는 글귀를 쓰면 완성된다. 또 판화가 그려진 엽서에 편지글을 써 5월 영령과 유가족, 광주시민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도 있다. 또한 그동안 마음 속에 품어뒀던 가장 가까운 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 사연 역시 엽서에 글로 써 선물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인 문병란의 집 큐레이터 박노식 시인은 "매년 5·18 특별전을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전시를 넘어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판화 공간이 마련됐다"면서 "5월 관련 작품을 소장하고 선물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제3회 솔림성악콩쿠르' 내달 광주서 열린다

6월22일 전남대학교 예향홀서
7월6일 서울서 본선 대회 개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할 성악가를 가리는 '2024 제3회 솔림성악콩쿠르'가 오는 6월 서울과 광주에서 개최된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솔림성악콩쿠르는 전도유망한 음악도를 발굴해 열린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콩쿠르다. 심사의 공정성과 합리적인 운영 등을 통해 권위 있는 성악 콩쿠르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솔림성악콩쿠르의 예선 경연 장소는 서울과 광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6월 14일~15일과 6월 22일 각각 서울 두남재 아트홀과 전남대학교 예향홀에서 진행되고, 본선은 7월 6일 서울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펼쳐진다.

전공부는 1989년 1월 1일생부터 2005년 12월 31일생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올해 신설된 아마추어부는 만 19세(2005년생) 이상 참여 가능하다. 또한 전공부 1위에게는 상금 1000만 원이, 아마추어부 1위에게는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되고, 2위와 3위 입상자들에게도 상금이 수여된다.

접수는 20일부터 6월 6일까지이다. 사단법인 워크위드어스 블로그에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이메일로 접수하거나 구글폼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솔림성악콩쿠르는 사단법인 워크위드어스가 주최하고 전남대학교 오페라연구소가 주관하며 솔림인베스트먼트가 후원한다.

한편 주최사인 워크위드어스(이사장 정호석)는 클래식 음악의 활성화와 국가의 문화 선진화 사업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단체다. 여러 기업 및 문화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수준 높은 문화 공연과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인재 육성뿐 아니라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사회 공헌도 실천해 오고 있다. 도선인 기자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제39회 서울국제관광전' 우수홍보상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2일 '제39회 서울국제관광전(SIFT 2024)'에 참가해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부스 운영으로 '우수홍보상'을 수상했다.

이번 박람회 동안 광주 동구 홍보관에는 5000여명 정도의 국내·외 관람객이 찾았으며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은 △21회를 맞이하는 '충장축제' △제3회 버스킹 월드컵 △광주아트패스 △동구 DMO(지역관광추진조직)사업 등을 홍보했다. 특히 동구의 유명 관광지 픽토그램을 이용한 초성퀴즈, 동구 소문내기 이벤트, 충장 프렌즈 소덕이와 함께하는 팔씨름 이벤트 등을 통해 가족 단위 관람객의 큰 호응을 유도했다.

서울국제관광전은 국내외 관광 홍보관 운영을 통한 정보 제공과 관광 관련 업계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박람회이다. 올해 박람회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됐으며, 40여 국가, 250여 개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업체가 참여했고, 500여개의 홍보관이 운영됐다. 도선인 기자

ACC재단, 어린이 그림책 '개굴개굴 고래고래'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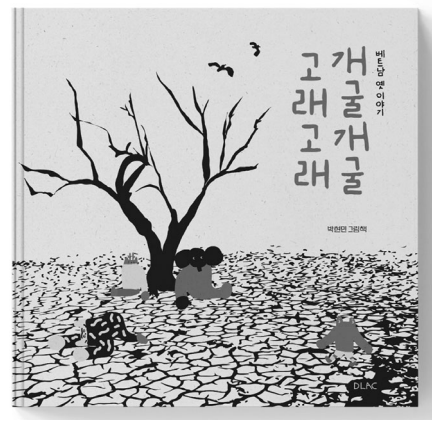
ACC 창제작 공연 각색

베트남 전래동화를 소재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창·제작한 공연콘텐츠가 어린이 그림책으로 찾아온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 수상작가인 박현민의 어린이 그림책 '개굴개굴 고래고래'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림책 '개굴개굴 고래고래'는 베트남 전래동화 '개구리가 울면 왜 비가 내릴까?'를 바탕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창·제작한 어린이 공연을 각색한 작품이다.

이 책은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목마름에 시달리던 동물들과 개구리 구르구르가 비를 찾는 여정을 그린 이야기로, 쓰레기로 고통 받는 자연과 물에 대한 소중함을 다루고 있다.



ACC재단 발간 '개굴개굴 고래고래'.

특히 이번 책의 글과 그림은 2021년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 라가치 상에 이어 2022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된 박현민 작가가 맡아 눈길을 끈다.

그림책 '개굴개굴 고래고래'는 각종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 도서와 함께 출시된 연계상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상품점 '들락'과 어린이문화원 내 상품점에서 만날 수 있다.

김선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우리 재단은 매년 그림책과 팝업북 등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 도서를 출간하고 있다"면서 "어린이 도서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상품과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의 감성과 창의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